

비상대책위원회, 본격적인 제휴카드 폐지 투쟁 전개

# 꿈을 향해 시작된 비상

자영제과점의 생존권을 위해 결성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7월 26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모금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외적으로 자영제과점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1만여 자영제과점의 꿈을 등에 업고 비상을 시작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사항을 정리해본다. 글 김영주 기자

'지난 6월 16일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투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고 모금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제휴카드의 문제점과 자영제과점의 상황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투쟁에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제과 업계 전반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제과인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투쟁에 앞장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8명을 먼저 소개하고 황일하 공동위원장의 호소문 낭독이 이어졌다. 황일하 공동위원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전국의 자영제과점이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뚝뚝 뭉쳐 대항한다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쟁활동에 필요한 모금 마련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열린 토론 끝에 개인 회원들에게 3만 원 이상의 모금을 걷는 것에 합의했다.

제휴카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제과점의 입장을 실은 8월 9일자 <주간동아>.



특히 이날 대구·경북지회와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회에서 각각 1천만 원을 쾌척해 큰 박수를 받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가 합심하여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쟁에 필요한 모금이 뒷받침되어야 투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휴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제휴카드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자영제과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7월 26일에 <주간동아>와 인터뷰를 통해 제휴카드가 제과업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제휴카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주간동아>는 8월 9일자에 '발어먹을 제휴카드 동네 빵집 다 죽이네'라는 제목으로 제휴카드로 인해 제과업계에 생겨난 폐해와 제휴카드와 관련된 영화, 외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자세하게 실었다. 이어 8월 3일에는 매일경제TV와도 인터뷰를 갖고 언론을 통해 제휴카드 폐지 투쟁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뿐 아니라 지역 언론인 부산지역방송과 전북일보 등을 통해 제휴카드로 인해 도탄에 빠진 제과업계의 실상을 보여 주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언론 매체와의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 제휴카드 폐지 활동이 제과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회지부와 연계해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사)대한제과협회 사무실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개설, 계획적인 투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1 7월 26일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는 100여 명의 제과인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2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휴카드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최원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2005. 8. 23 현재 모금현황

대구경북지회	1천만 원
인천지회	1천만 원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회	1천만 원
안산시지부	400만 원
마포지회	300만 원
마산시지부	300만 원
강남서초지회	280만 원
강동송파지회	200만 원
양천지회	200만 원
청주시지부	200만 원
포항시지부	200만 원
316과자연구회	200만 원
경산시지부	100만 원
마포지회	50만 원
동해시지부	21만 원
함상운	10만 원
이연옥	3만 원
김해민	3만 원

총계 5천467만 원